

한국어의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채 희 락
(한국외국어대학교)

Chae, Hee-Rahk. (2005). Particles in Korean: Focusing on verbal particles. *Language Research* 41(3), 569-60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orpho-syntactic nature of Korean “particles/little words.” We begin with providing a survey of some works on nominal and cross-categorical particles. We agree with the view that nominative/accusative case markers are “phrasal affixes” and that postpositions and delimiters are clitics. Then, assuming that *-si-*, *-ess-*, *-keyss-* and *-ta* are inflectional affixes, we focus on analyzing those verbal particles which occur after the mood marker: the quotative marker *-ko* and other post-verbal elements like *-nta* in *khu-ta-nta*. We argue that these elements should be analyzed as clitics, at least for one reading. According to our analysis, many “closing” verbal particles are inflectional affixes. However, some closing ones are ambiguous between inflectional affixes and clitics. Some “connecting” verbal particles are also ambiguous, but some others are analyzed as clitics-only elements.

Key words: nominal, cross-categorical, verbal particles; morpho-syntactic status, inflectional affixes, phrasal affixes, clitics, the quotative marker, post-verbal elements; closing, connecting verbal particles

1. 도 입

한국어의 체언과 용언에는 어근/어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소가 붙어 있다. 이 형태소들은 유형별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형태-통사적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논문의 내용은 2003년 12월 20일에 열린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 세미나에서 “한국어의 명사류와 동사류 및 범범주 소단위어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후 2004년 6월 19일 한국언어정보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지금의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2005년 4월 23일의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 세미나에서도 발표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강범모, 고석주, 김운용, 노용균, 양정석, 이필영, 이해윤, 전중섭, 조수경, 최혜원 선생님과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내용이 크게 수정 또는 보완이 되었다. 특히, 양정석 선생님과 이필영 선생님은 전체 원고를 자세히 읽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좋은 논평을 많이 해주셨다. 이 분들뿐만 아니라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해야 한다. 이들의 지위는 파생접사나 굴절접사 혹은 제3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단위어(particles/little words)”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들이다 (cf. Chae 1991/2000, 1995, 채희락 1996나).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절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별 단어적 속성도 가지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단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형태-통사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며,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태-통사적 지위상 굴절접사적 특성과 독립 단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법 단위를 “접어(clitics)”라고 한다. 소단위어들은 일반적으로 접어로 분석될 수 있지만 모든 소단위어가 접어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특히 동사류 소단위어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간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장 분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단위어 전반에 대한 연구물은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어떤 요소가 파생접사나 굴절접사가 아닌 접어로도 분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구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cf. Chae & No 1998: 69-70).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어떤 소단위어들이 접어로 분석되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모든 소단위어를 접어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두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 볼 것이다.¹⁾ 명사류 소단위어인 “후치사(postpositions)/부사격 조사”와 범범주 소단위어인 “한정사(delimiters)/보조사/특수조사”가 접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사에 붙는 여러 요소 중의 일부를 접어로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장에서 이 논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동사류 소단위어는 주로 굴절접사로 분석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는 접어로 처리되어야 함을 보게 될 것이다. 접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큰 단위는 ‘먹었다-고’나 ‘잡았다-니까’의 ‘-고’와 ‘-니까’처럼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결어미와 해당 단위 사이에 ‘(-고) 하-’나 관련 동사의 어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동사가 숨어 있을 때는 해당 요소가 그 동사의 어간에 붙는 굴절접사로 분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4.1절에서 인용격 조사 ‘-고’는 형태-통사적으로 접어로 분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동사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4.2절에서는 일부 종결/연결어미가 굴절접사와 접어로 분석되는 중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 ‘-단다’의 ‘-ㄴ다’는 그 앞에 어떤 동사의 어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때는 굴절접사로 분석이 되며 보이지 않

1) “범범주 소단위어”란 한 특정한 범주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주에 두루 붙을 수 있는 소단위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 -조차, -는, -도’ 등의 한정사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명사류와 동사류뿐만 아니라 부사어에도 붙을 수 있다.

는 동사조차 설정할 수 없을 때는 접어로 분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는 4.1절과 4.2절에서 제시된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새롭게 분류해 보고자 한다.

2. 어절 분석과 극단적인 어휘주의

형태 구성상 단어는 어근과 그 외 여러 종류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합되어 있다.

(1) 단어의 형태론적 구성:

[굴절접두사-파생접두사-어근-파생접미사]-굴절접미사]

어근을 중심으로 바로 앞뒤에는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es)”가 올 수 있으며 그 바깥에는 “굴절접사(inflectional affixes)”가 나타난다.²⁾ 이처럼 굴절접사가 단어 구성 요소 중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어절은 이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과 같은 교착어에는 굴절접사 바깥에 붙어 있는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록 음운론적으로는 독립성이 없지만 통사론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어와 같은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어(clitics)”로 불린다 (Zwicky & Pullum 1983, Zwicky 1985).

(2) Grammatical units with some properties of inflectional morphology and some of independent words.

(3) (Inflections) - Phrasal Affixes - Bound Words - Quasi-clitics - (Words)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단위를 통칭적으로 접어라고 하지만 접어도 속성에 따라 몇 종류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Nevis 1985). 전형적인 접어를 “bound words”라고 하고, 이보다 단어적 속성이 더 큰 요소를 “quasi-clitics”로 그리고 굴절접사적 속성이 더 큰 요소를 “구접사(phrasal affixes)”라고 부른다.³⁾ 영어의 관사나 전치사처럼 독립 단어이지만 음운적으로 의존성이 큰 것을 “quasi-clitics”라고 한다. 구접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어의 “소유격 [-’s]”를 들 수 있다.

2) 파생접사는 단어 내부의 문제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통사적 역할이 없지만 굴절접사는 해당 단어 외 부 요소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필요한 문법 정보를 가지고 있다.

3)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에서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ies)”를 지칭하는 말로 구접사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 선택이다 (Chae & No 1998: 69). 기능범주는 통사적으로 독립된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접어에 속한다.

(4) 가. [the king of England]'s book

나. [the man over there]'s book

['s]는 굴절접사적인 속성이 강하지만,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굴절접사와는 달리 단어에 붙는 것이 아니라 구 단위에 붙는다.

접어까지 생각하면 음운론적으로 어근에 종속된 요소는 파생접사, 굴절접사와 더불어 세 가지 유형이 된다. 이들의 정확한 형태-통사적 지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어/어절 단위의 분석이 한국어 분석에서 가장 열띤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Chae & No 1998: 70, 81-82).

(5) 가. [선생-님-들]-한테-만-이 (아니다)

나. [잡-히]-시-었-겠-다-고-요

(가)에서 ‘선생’은 어근이고 ‘-님’은 파생접사이며 선행 명사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들’은 굴절접사라는 데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한다.⁴⁾ 그리고 (나)에서는 ‘잡-’이 어근이고 ‘-히-’가 파생접사이며 ‘-요’가 접어라는 데에도 큰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시각 차가 크다.

크게 나누어 어휘적 접근법과 통사적 접근법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Chae & No 1998: 70). 표면구조 중심의 “단층 이론(monostratal theories)”에서는 주로 어휘적 접근법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요소를 모두 굴절접사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지배-결속 이론 등 심층구조도 인정하는 “다층 이론(multistratal theories)”에서는 통사적 접근법을 취하는데 해당 요소를 통사적으로 독립된 범주를 가지고 있는 기능범주, 즉 접어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부류의 분석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명사류 소단위어와 동사류 소단위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명사류와 동사류 소단위어를 모두 굴절접사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모두 접어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사류 소단위어와 동사류 소단위어는 반드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하위 부류도 모두 동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Chae & No 1998: 71).

통사적 접근법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 (5가)의 명사류 및 범범주 소단위어뿐만 아니라 (5나)의 동사류 소단위어들까지 모두 기능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cf. Ahn & Yoon 1989, Yoon 1990, 최기용 2003). 이런 분석에서는 ‘-시-, -었-, -겠-, -다’와 ‘-고’가 모두 통사적으로 독립 범주이며 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⁵⁾

4) 우리말의 복수 표지 ‘-들’은 두 종류가 있다. (5가)의 ‘-들’은 선행 명사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생접사와 후치사 중간에 나타나는 굴절접사이다 (“(genuine) plural marker”: Chae & No 1998: 70). 다른 한 종류는 선행 명사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후치사 다음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문법 범주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접어이다 (“plural subject marker”: Chae & No 1998: 82): ‘어서-들 선생-님-들-께-들-가-들 보세요-들’

5) 각 소단위어에 부여될 수 있는 범주는 다음과 같다: [-시-: Agr (일치소), ‘-었-: Tense (시제소), ‘-겠-:

(6) [VP-시]AgrP-었]TenseP-겠]AspP-다]MoodP-고]CompP

그러나 용언의 어간과 이들 소단위어의 속성 및 상호 관련성을 살펴 보면 ‘-시/-었-/겠-/다’를 독립 단어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hae & No 1998: 90-91).⁶⁾ 첫째, 용언의 어간은 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다. 둘째, 이들 어말어미는 용언 어간 다음에만 나타나고 그 이외 범주에는 붙을 수가 없다. 셋째, ‘귀엽-어[귀여워]’에서처럼 어간과 어말어미는 음운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현상은 전형적으로 어간과 굴절접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접근법의 부담이 된다.⁷⁾

어휘적 접근법에서는 (5나)의 동사류 소단위어들은 물론 (5가)의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들까지 굴절접사로 분석을 한다. 특히, Cho & Sells (1995)와 김종복 (2004) 등 극단적인 어휘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접근법에서는 음운론적으로 홀로 설 수 없으면 모두 선행 단어의 굴절접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와 ‘책이다’의 ‘하’와 ‘이’조차 선행 체언의 굴절접사로 보며⁸⁾ 명사화소 ‘-음/기’는 선행 용언의 굴절접사로 본다. 이처럼 음운론적 독립성을 단어 정립의 주요 기준으로 보면 불완전 명사나 ‘새, 헌’ 등의 일부 관형사도 독립 단어로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들도 모두 음운론적으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⁹⁾

극단적인 어휘주의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만약 계사 ‘이’가 명사의 굴절접사라면 ‘책상이다’는 명사가 된다. 굴절접사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상이다’와 같은 “명사”가 어떻게 용언 기능을 하는지, 또 이 명사에 어떻게 ‘다’와 같은 용언 어미가 붙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명사화소 ‘-음/기’도 용언의 굴절접사로 보기 때문에 ‘만끽함’과 같은 표현도 용언 ‘만끽하-’의 한 형태로 본다. 그렇다면 ‘만끽함이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만끽함’이라는 “용언”에 “명사 굴절접사” ‘이’가 붙었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너만임을’과 같은 표현에서는 ‘너만이-’라는

Asp (양상소), ‘다’: Mood (서법소), ‘고’: Comp (보문소)]

- 6) ‘-시-’에서부터 종결어미까지는 일반적인 굴절 패러다임을 이루는 요소들처럼 모두 “자질(features)”로 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7) ‘-시-/-었-/겠-/다’를 모두 굴절접사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과거 시제 표지 ‘-었-’의 작용역에 따라 중의성을 띠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철수가 밥을 먹고 영희가 빵을 먹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결어미 ‘-고’가 대등 접속 기능과 종속 접속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의적 요소라고 가정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고’가 대등적 기능을 할 때는 앞 절과 뒷 절이 독립적으로 해석되어 전자는 현재 의미와 후자는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가 종속적 기능을 할 때는 앞 절이 뒷 절의 종속절이 되므로 앞 절도 ‘-었-’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 과거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cf. Chae & No 1998: 94). 이런 분석의 타당성은 앞 절이 현재로 해석될 경우가 과거로 해석될 경우보다 관련된 두 사건의 독립성이 크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8) 동사로서의 ‘하-’는 완전한 독립 단어로, 형용사로서의 ‘하-’는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채희락 1996가). 그리고 계사 ‘이-’도 접어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cf. Chae & No 1998: 95-96).
- 9) 영어에서 축약된 조동사는 음운론적으로 독립성이 없지만 단어, 즉 접어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예: ‘He’s done it’의 ‘s’).

“명사”에 “용언 굴절접사” ‘-ㅁ’이 붙었다고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정한 “굴절접사들”의 분포와 순서를 설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 (7) 가. 호랑이에게 [잡하-시-었-겠-음-만-으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
나. 그런 죄는 [지도자-이-었-었-음-만-으로-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위의 문장들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 속 표현의 문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어근 오른 쪽 요소들은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는데, 계사와 명사화소 등을 모두 굴절접사로 보면 이 순서를 규정하기 위해 무한히 많은 자리를 가진 “형판(templates)”가정해야 한다. ‘잡히시었겠-음-만-인-었겠습니까’에서처럼 ‘-음’과 ‘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서를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 쪽에는 동사류 소단위어가 나타나고 그 뒤 쪽에는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이’ 앞 쪽에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 쪽에는 동사류 소단위어가 나타난다. 계사 ‘-이’와 명사화소 ‘-음’을 굴절접사로 보면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3.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

한국어에서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은 동사류 소단위어들보다는 독립 단어적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접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오래 전부터 이들은 “조사”라는 독립 품사로 인정을 받아 왔지만, 동사류 소단위어들은 일부 분석에서만 독립 범주로 가정되어 왔다 (cf. 남기심/고영근 1993: 33, 4장).¹⁰⁾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어 받아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들은 주로 접어로 분석하고 대부분의 동사류 소단위어들은 굴절접사로 분석하고 있다 (Chae 1995, 채희락 1996나, Chae & No 1998).¹¹⁾ 다만, 명사류 소단위어 중 굴절접사적인 속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조사는 Chae (1991/2000) 이후 구접사로 분석해 왔으며, 일부의 동사류 소단위어는 접어로 분석되어야 함을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다음 4장 참조).

명사류 소단위어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격조사와 후치사가 있다. ‘철수-한테-가’와 ‘*철수-가-한테’를 비교해 보면 후치사가 격조사보다 앞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후치사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위에서 보았듯이, 단어의 구성상 어근 다음에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가 순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굴절접사 바깥에는 이 굴절접사가 속한 단어가 아닌 다른 통사적 요

10) 역사적으로 주시경 (1910, 국어문법)은 조사와 용언 어미를 모두 단어로 보았으며 (“분석적 체계”), 정철모 (1946, 신편 고등 국어문법)와 이승녕 (1953)은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의 일부로 보았다 (“종합적 체계”). 반면에 최현배 (1937)는 조사는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았다 (“준종합적 체계”).

11) 우리의 입장은 위 각주 10의 분류에 따르면 최현배 (1937)의 준종합적 체계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 즉 접어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한테’와 같은 후치사는 파생접사, 굴절접사 혹은 접어 중 하나로 분석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후치사를 파생접사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8) [내가 어제 방문한]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만약 후치사가 파생접사라면 ‘공장-에서’가 부사가 되며 앞의 관계절이 이 부사를 수식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절이 부사를 수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후치사가 굴절접사로 분석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Cho & Sells (1995)와 김종복 (2004) 등 극단적인 어휘주의 입장에서는 후치사를 굴절접사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형태 분석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복합 후치사의 인정 범위에 따라) 수십 내지 수백 종류의 후치사가 설정될 수 있는데,¹²⁾ 이들이 명사의 굴절 패러다임을 이룬다고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굴절접사는 자질로 해당 정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자질로 구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집-에 (있었다)’와 ‘운동장-에서 (놀았다)’에서 ‘-에’와 ‘-에서’의 차이를 자질 정보로만 나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독립된 형태를 가진 통사적 요소인 접어로 볼 수밖에 없다 (채희탁 1996나: 2.1절). 후치사가 접어이기 때문에 (8)의 ‘공장-에서’는 후치사구가 되며 앞에 나오는 관형절은 ‘공장’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격조사는 어떤 형태-통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자. 격조사는 굴절접사적인 속성과 접어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Cho & Sells (1995)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격조사가 굴절접사라고 주장한다. 첫째, [‘무엇-을,’ ‘무엇-이’]와 [‘(이) 것-이,’ ‘(이) 게’]와 같은 자료 각 쌍의 두 번째 변이형에서 볼 수 있듯이 “변칙적 어휘화(idiosyncratic lexicalization)”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접어는 “숙주(host)” 단어의 음운론적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굴절접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인칭과 이인칭의 대명사에 주격조사가 붙을 때는 대명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내/네-가,’ cf. ‘나/너-를/의/는’). 이러한 “보충(suppletion)” 현상도 굴절접사적인 특성이다 (Zwicky & Pullum 1983).

격조사가 일부 굴절접사적 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순수 굴절접사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다 (Chae 1991/2000, 채희탁 1996나: 2.2절). 우선, 격조사는 후치사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언어 보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

(9) Clitics can attach to material already containing clitics, but affixes cannot (Zwicky & Pullum 1983: 504).

12) 남윤진 (2000: 42, 166)에 따르면 약 1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71종의 단순 조사, 452종의 복합 조사”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만약 격조사가 굴절접사라면 접어인 후치사 다음에 붙을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격조사는 결합 단위에 있어서도 접어적인 성격을 보인다.

(10) 가. [철수와 순이]-가/를/의

나. *[철수-가/를/의]-와/과 [순이-가/를/의]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격조사는 주어나 목적어 단위의 오른 쪽 가장자리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단어보다 큰 결합 영역을 가지는 것은 접어 혹은 독립 단어적인 속성이다. 그렇지만 격조사를 전형적인 접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살펴 본 굴절접사적인 속성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격조사가 명사 복합체의 마지막 위치에 온다는 사실도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격조사는 굴절접사적인 속성과 (전형적인) 접어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절접사로 분석할 수도 없고 전형적인 접어로 분석할 수도 없다. 그러나 (3)에서 살펴 본 접어의 세 유형 중에는 굴절접사와 전형적인 접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단위, 즉 구접사가 있다. Chae (1991/2000)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의 격조사를 구접사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격조사의 형태적 불규칙성뿐만 아니라 분포상의 특징과 결합 범위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범범주 소단위어인 한정사는 용언과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어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접어적인 속성이 쉽게 드러난다 (Kuh 1988). Chae & No (1998)에서는 이들을 형태-통사적으로는 접어이고 기능적으로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문법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 범범주 소단위어는 배열/분포상의 특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어인 후치사와 구접사인 격조사 사이에 나타나는 ‘-만, -밖에, -까지, -조차, -마저’ 등과 격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상호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는 ‘-은/는, -도’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X-한정사(X-delimiters)”와 “Z-한정사(Z-delimiters)”로 불린다 (Yang 1972).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후치사와 한정사는 (전형적인) 접어로 격조사는 구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분석에 따라 Chae & No (1998: 79)에서는 명사 복합체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 [Root-Der Suffix-Infl Suffix] - (i) - Postposition - (ii) - Phrasal Affix

(5가)에서 든 예 ‘선생-님-들-한테-만-이’를 바탕으로 이 복합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근 ‘선생’에 파생접사 ‘-님’과 굴절접사 ‘-들’이 붙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cf. 각주 4). 이들만 ‘선생님들’이라는 단어의 내부 요소이며 나머지는 이 단어의 바깥 요소들이다. 바깥 요소 중에서는 접어인 후치사 ‘-한테’를 중심으로 그 뒤에 X-한정사인 ‘-만’이 올 수 있다. X-한정사는 ‘-한테-만’에서처럼 주

후치사 P와 X-한정사 X-DEL은 접어이기 때문에 [CLITIC +]라는 자질을 가지며 이는 음운론적으로 앞 요소에 붙어야 함을 나타낸다. ‘선생님들께서만’이라는 후치사구에 부여된 [LAST Nom]이라는 자질은 그 속성상 이 후치사구의 마지막 요소인 ‘만’에 전달된다. 그리고 이 자질은 형태부에서 ‘이’나 ‘가’로 구현이 된다.

우리는 이 장에서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명사류 소단위어 중 격조사는 특수 접어인 구접사로 후치사는 (전형적인) 접어로 분석하고, 범범주 소단위어인 한정사도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았다. 소단위어들을 그 유형에 따라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 (11)에서처럼 명사에 붙는 각종 소단위어들의 연결 순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의적인 형편을 설정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제약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cf. Chae & No 1998: 76-78). Cho & Sells (1995)에서는 형편을 설정하고 있는데 너무 제약이 커서 많은 자료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Yoon (1995)에서는 형편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과잉 생성의 문제로 인해 추상적인 제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분석에서는 각 소단위어가 단어 내부 요소인 파생/굴절접사인지 독립 단어인 접어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통사 분석과 의미 분석을 위한 건실한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치사는 후치사구의 머리어 역할을 하며 한정사는 수식어로 앞에 나오는 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후치사를 파생접사나 굴절접사로 보면, 위에서 자료 (8)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듯이, 올바른 통사 분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 분석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4. 동사류 소단위어

우리는 앞 장에서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을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동사류 소단위어의 형태-통사적 지위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에서와는 달리 이들 대부분은 순수한 어미로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부는 통사적으로 독립 단어인 접어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함을 보게 될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는 파생접사나 굴절접사와 같은 단어 내적인 단위도 있지만 그 형태-통사적 지위가 불분명한 것도 있다.

(5나) 잡-히-시-었-겠-다-고-요

(6) [[[[[[잡-히]_{VP-시}]_{AgrP-었}]_{TenseP-겠}]_{AspP-다}]_{MoodP-고}]_{CompP}

앞에서 보았듯이, (5나)에서 수동 접미사 ‘-히-’가 파생접사라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론별로 분석에 큰 차이가 있다. ‘-시-, -었-, -겠-, -다’를 모두 통사적 단위, 즉 접어로 보는 (6)과 같은 분석에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굴절접사로 본다. 그렇지만 종결어미 ‘-다’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에 나오는 ‘-요’를 접어로 보는 데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이는 동사류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명사류와 그 외의 품사에도 붙으며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정사이기 때문이다 (cf. ‘제가-요 어제-요 영화를-요 세 편을-요 보았습니다-요’). 그러나 ‘-고’에 대해서는 독립된 형태소조차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부터 독립 단어로 보는 견해까지 다양한 분석이 있다.

용언 어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소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혹은 “전성어미” 중의 하나이다.¹⁴⁾ 이들과 이들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어절의 외곽 요소이기 때문에 용언에 딸린 요소가 아니라 외부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동사류 소단위어 중 접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선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인용격 조사 ‘-고’와 ‘(나는 배가) 고프단다’와 같은 표현의 ‘-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명사화소 ‘-음/기’와 관형화소 ‘-는, -(으)ㄴ, -(으)ㄹ’ 등의 전성어미가 있다.¹⁵⁾ 이들은 용언을 체언이나 관형어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4.1. 인용격 조사 ‘-고’

우리는 이 절에서 인용격 조사 ‘-고’의 형태-통사적 속성을 먼저 살펴 보려고 한다. ‘-고’는 통사적 단어인 접어로 분석이 되어야 하며 품사는 “보문소 (complementizers)”로 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고’ 앞에 어떤 숨어 있는 동사의 어간이 있다면 ‘-고’는 그 동사의 굴절접사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에는 숨은 동사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1.1. 형태-통사적 지위: 접어

위에서 말했듯이, 인용격 조사 ‘-고’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독립된 형태소를 이루는지, 그렇다면 독립 단어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이 있다. Chae & No (1998: 88-89)에서는 ‘-고’를 독립 형태소로 볼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고’는 아래 (가)의 소수의 종결어미 다음에만 나타나고 (나)의 많은 종결어미 다음에는 나올 수 없다.¹⁶⁾

14) 종결어미의 형태는 문장의 종류와 (상대) 경어법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어법의 등급은 “해라체, 반말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f. 이익섭/채완 1999: 349, Sohn 1999: 269). 경어법 등급별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청유문의 대표적인 어미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해라체: -다/는다/다; -느냐/냐; -니; -아라/어라; -자

반말체: -아/어; -아/어; -아/어; -아/어

하계체: -네; -나/-는가; -게; -세

하오체: -오; -오; -오; -(으)ㅂ시다

합쇼체: -ㅂ니다/습니다; -ㅂ니까/습니까; -(으)십시오; -(으)십시오

15) 다음 문장의 ‘-이’는 용언을 부사어로 바꾸어 주는 부사화소 전성어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ohn 1999: 396). [자유가 없-이]는 못 산다, [눈이 올 것 같-이] 날씨가 춥다.

- (13) 가. -ㄴ다/는다/다/라-고, -더라-고, -느냐/냐고, -(으)라고, -자-고
나. *네-고, *니니다/습니다-고, *는군-고, *는데-고, ...

만약 ‘-고’가 독립된 형태소라면 (나)에 나오는 표현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계사 어미 ‘-라고’와 명령형 어미 ‘-(으)라고’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종결어미가 없다.

- (14) 가. 학생이-라고 하네, *학생이라 (cf. 학생이다)
나. 삶-으라고 하네, *삶으라 (cf. 삶어라)

만약 ‘-라고’가 종결어미 ‘-다’와 ‘-고’ 결합체이고 ‘-(으)라고’가 ‘-어라’와 ‘-고’의 결합체라면, 어떻게 [다]가 [라]로 그리고 [어라고]가 [(으)라고]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13가)의 모든 표현들을 단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이들 모두를 단순히 굴절 접사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위의 단일 형태소 분석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13가)의 모든 표현들을 서로 관련성이 없는 개별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⁷⁾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인용 동사가 취하는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고’와 선행 요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기심 1973/1986: 116, 권재일 1985: 41-42 등).

- (15) 가. 철수가 간다고 한다. 나. 철수가 간다 한다.

- (16) 그는 내일 온다/오느냐/오라/가자 했다.

통사/의미적 관련성으로 볼 때, (15)에서 문장 (가)와 문장 (나)의 차이는 ‘-고’의 존재여부에 따른 차이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¹⁸⁾ 만약 ‘-고’가 독립된 형태소가 아니라 형태소의 일부분이라면 이런 현상은 생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사 작용을 겪는 최소 단위는 일반적으로 단어이거나 최소한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고’가 독립된 형태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단어일 가능성

16) 어간이 계사 ‘이’일 때 ‘-고’ 앞의 어미는 일반적으로 ‘-라’가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고’가 어간이나 ‘시’와 결합하면 ‘-라’로 되지만 (‘선생님-이(-시)-라고’), ‘-었’ 다음에는 ‘-다’로 쓰인다 (‘선생님-이-었-다-고’).

17) 경상도 방언에서는 ‘-다고 하-ㄴ다’와 ‘-다고 하-더라’가 각각 ‘다 칸다’와 ‘다 카더라’로 나타난다. 여기서 ‘-카’는 ‘-고’와 ‘하’가 결합하여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다고’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면 ‘-고’를 독립 형태소로 볼 때보다 이 축약형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18) “생략”이라는 통사 작용을 인정하는 변형생성문법 계통의 다층 이론에서는 (15가)에서 ‘-고’가 생략되어 (15나)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생략을 인정하지 않는 표면구조 중심의 단층 이론에서는 두 문장이 취하는 하위문의 종류가 다르다 (cf. 4.2.3절).

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가 독립 형태소라면 위의 자료 (13-14)와 관련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고’가 소수의 종결어미와만 결합할 수 있으며 일부 어미의 경우 음운이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 높임법의 경어법 등급 중 ‘-고’와 결합할 수 있는 독립 화계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남기심 (1971: 226)에서는 이 화계를 “중화된 형식”이라고 했으며 고영근 (1974)에서는 “하라체”로 불렀다. 그리고 Sohn (1999: 271)에서는 “중립 화계(neutral speech level)”로 부르고 있다.¹⁹⁾ 중립 화계의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²⁰⁾

- (17) 가. 평서형: -ㄴ다/는다/다/라, -더라
 나. 의문형: -느냐/냐
 다. 명령형: -(으)라
 라. 청유형: -자

‘-고’는 이들 중립 화계의 종결어미를 가진 단위와만 결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3나)의 표현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어미가 중립 화계 어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14)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음운 규칙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 이 분석에서는 [다]가 [라]로 그리고 [어라]가 [(으)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미가 원래부터 ‘-라’와 ‘-(으)라’이기 때문이다.

중립 화계의 어미 체계는 해라체의 어미 체계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cf. 각주 14). 우선,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립 화계에는 평서문 어미에 ‘-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명령문 어미도 ‘-어라’가 아니라 ‘-(으)라’이다. 이밖에 몇몇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도 차이가 있다. 해라체에서는 ‘오다, 가다 부르다’ 등의 명령형이 ‘오너라, 가거라, 불러라’로 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중립체에서는 ‘오라, 가라, 부르라’로 규칙 활용을 한다 (‘오/가/부르-라-고 했다’). 이처럼 해라체와 중립체는 그 차이가 분명하므로 중립 화계의 설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가 독립 형태소이므로 (13가)의 연쇄체들, 예를 들어, ‘(아름답)-다-고’의 ‘-다-고’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고’를 ‘-다’와 마찬가지로 굴절접사로 볼 수도 있고 ‘-다’와는 속성이 다른 접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입장에서 어절의 마지막에 오는 굴절접사 다음에 또 다른 굴절접사가 나온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용격 조사 ‘-고’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분석은 접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품사상으로는 영어의 ‘that’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문소로 볼 수 있다.²¹⁾ 그러므로 (15가)와 (15나)의 차이는 인용 동사

19) 이필영 (1993: 20)은 “간접 인용절에서 상대 높임법이 중화되는 것은 간접 인용절이 특정한 문맥을 상징할 수 없는 추상적 문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0) (17)에 나오는 어미 이외에 ‘-는가/ㄴ가’와 ‘-파’를 중립 화계 어미로 넣는 경우도 있다 (고영근 1974, 이지양 1996: 192).

‘하-’가 취하는 절이 S/CP인지 S인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 분석의 장점은 우선 (13가)의 모든 표현들이 보문자 ‘-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인용 동사가 요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5나)와 (16)에서 ‘-고’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도 보문소의 일반적 속성인 수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독립된 형태소이며 동시에 (적어도 통사적으로는) 독립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어미와 분리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포상 종결어미 다음에 온다는 사실도 자의적인 제약을 설정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 종결어미는 굴절 접사로 단어 내부의 요소이지만 ‘-고’는 해당 단어 바깥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4.1.2. 추상 동사 ‘Ø’의 굴절접사?

이제까지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고’를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행 요소도 종결어미로 끝나서 홀로 설 수 있는 독립 단어이기 때문에 접어의 숙주로서의 자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²²⁾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만약 ‘-고’ 앞에 어떤 추상적인 동사의 어간이 있다면, 즉 ‘먹-는다-고’를 ‘먹-는다 Ø-고’로 분석하면 ‘-고’가 붙는 단위는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아니라 그 추상 동사 어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는 이 어간에 붙는 요소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숙주도 홀로 설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접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고’ 앞에 음가가 없는 Ø-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추상 동사를 설정하는 것은 “표면주의”와 “어휘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담이 크다. 더군다나 이 어간이 ‘Ø’인 동사, 즉 Ø-형 동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겹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동사도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추상적인 요소이다. 둘째, 용언의 어말어미는 종류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선행 어미가 제약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말어미가 존칭어미 ‘-시-’와는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사는 어간과 ‘-고’ 사이에 ‘-었-’이나 ‘-겠-’뿐만 아니라 존칭어미도 허가하지 않는다 (‘간다 Ø*시(-었/겠)-고 (말씀하셨다)’). 반면에 (‘천천히) 오란다/간단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오라/간다’와 ‘-다’ 사이에 ‘(-고) 하-’나 관련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이 경우에는 ‘오라/간다-시-다’나 ‘오라/간다-시-었/겠-다’에

21) ‘-고’ 이외에 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종속 의문문 표지인 ‘-는지/(-으)르지’이다. 그러나 이 표지가 접어인지 굴절접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22) 접어의 숙주는 일반적으로 독립 단어이지만 ‘건강-하다, 훌륭-하다, 맵-하다, 짜릿-하다, 상큼-하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홀로 설 수 없는 단위인 ‘건강’ 등이 접어 ‘하다’의 숙주이다.

23) 4.2.3절에서 살펴 보겠지만 ‘오란다’에서 ‘오라’와 ‘-다’ 중간에 존칭/시제 어미가 삽입되어 ‘오라-시-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라’와 ‘-시-’ 중간에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숨은 동사에 대해 생략의 동사 작용을 인정하는 이론에서는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cf. 각주 18). 후자의 이론에서

서처럼 존칭이나 시제 어미가 삽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필영 1993: 124, 이지양 1996: 199). 셋째, ‘먹-는다 0-고’에서 0-형 동사는 종결어미를 가진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동사가 ‘-고’ 형태의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한다고 하면 이 ‘-고’는 어말어미에 붙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 가게 된다. 이 0-형 동사 앞에 종결어미를 가진 동사구가 온다면, 이 동사구에는 왜 중립 화계의 종결어미만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의 특정 동사, 즉 0-형 동사 앞에서만 중립 화계 어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자의적인 제약이 된다.

‘-고’ 앞에 0-형 동사를 가정하는 접근법의 더 큰 어려움은 0-형 동사를 두 개 이상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바쁘단다’와 같은 표현은 중의적이다.

(18) 가. 철수가 영화는 매우 바쁘단다₁.

(cf. 철수가 영화는 매우 바쁘다고 한다.)

나. 지금 이 아빠는 매우 바쁘단다₂.

(cf. *지금 이 아빠는 매우 바쁘다고 한다.)

(가)에서는 화자가 철수의 말을 보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의 ‘바쁘단다₁’은 ‘바쁘다고 한다’로 대체할 수 있지만 (나)의 ‘바쁘단다₂’는 이런 대체가 불가능하다. 후자를 분석할 때는 ‘-고’ 앞에 설정한 것 이외의 또 다른 0-형 동사 ‘0₂’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바쁘단다₂’의 ‘-다’도 ‘-고’처럼 어말어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⁴⁾

(19) 바쁘단다₂: 바쁘-다 0-고 0₂-다

앞의 0-형 동사는 ‘-고’ 앞에만 나오는 용언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뒤의 0-형 동사는 ‘-고’로 끝나는 보충어를 취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0-형 동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보충어를 취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사로 볼 수가 없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추상적인 동사를 설정해야 하므로 여러 0-형 동사를 어떻게 구별할지, 0-형 동사를 몇 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등의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으면 해당 이론은 통제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체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에서는 0-형 동사

는, 예를 들어, (18가)의 ‘바쁘단다₁’를 분석하기 위해 0-형 동사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의 0-형 동사에는 ‘-시-, -었/겠’ 등의 어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고’ 앞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나 (19)에서 가정한 0₂보다 훨씬 덜 추상적인 요소로 그 실체를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cf. ‘저 할아버지에서 자기 손자는 매우 바쁘다-시-다’ vs. ‘*지금 이 할아버지는 매우 바쁘다-시-다’).

24)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쁘단다₂’의 ‘-단다’를 단일 형태소 어미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가 ‘-고’와 결합하는 다른 0-형 동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다. 또한 어떤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중간의 ‘-고’가 겹으로 드러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 앞에 0-형 동사를 가정하면 ‘먹-는다-고’는 ‘먹-는다 0-고’로 분석되어 두 개의 동사를 포함하고 ‘바쁘단다₂’는 세 개의 동사를 포함하는 단위가 된다 (cf. (19)). 그러나 실제로 ‘먹-는다-고’와 ‘바쁘단다₂’는 한 개의 주어만 허용한다. (18)의 자료와 다음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 가. 민수가 *[철수는 영희가 사과를 먹는다고] 말했다.

나. *엄마가 지금 이 아빠는 매우 바쁘단다₂. (cf. (18나))

이처럼 ‘-고’ 앞의 0-형 동사는 전혀 독자적인 주어를 취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물론, “상승동사(raising verbs)”나 조동사는 독자적인 주어가 없지만 위에서 설정한 두 0-형 동사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주어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2. (일부) 종결/연결어미의 중의성

앞 절에서 우리는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고’는 형태-통사적 지위상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보았다. 이렇게 최소한 하나의 동사류 소단위어는 접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동사류 소단위어들 중 접어로 분석되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 보자. 일반적으로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이 접어일 가능성이 큰데, 이 절에서는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몇몇의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²⁵⁾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바쁘-다-니다, 잡았-다-니까, 먹었-다-거니’와 같이 어간과 종결어미의 결합체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가 나오는 구성체를 “[V-SE-CSE]” 단위라고 칭한다.²⁶⁾ CSE의 지위를 판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은 SE와 CSE 중간에 ‘(-고) 하-’나 관련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cf. 각주 23). 만약 그런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면 CSE는 그 어간에 붙는 요소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SE와 직접 결합하는 단위로 보아야 한다. [V-SE-CSE] 단위 중 ‘(-고) 하-’나 관련 동사가 숨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환원적/단순 융합형”이라고 하고 그런 동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비환원적/진전된 융합형”이라고 한다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이지양 1996: 198).

25) 여기서 말하는 연결어미는 하나의 절을 다른 절에 연결해 주는 “대등적/종속적” 연결어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나 “연쇄동사(serial verbs)” 구성에서 두 동사를 연결해 주는 요소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6) V는 용언 어간을, SE는 “종결어미(sentential (closing) endings)”를 그리고 CSE는 “연결어미 혹은 종결어미(connecting or sentential endings)”를 나타낸다.

4.2.1. 비환원적 [SE-CSE]의 분석: ‘단다₂’를 중심으로

‘바쁘단다’나 ‘간단다’와 같은 표현의 ‘-ㄴ다’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단다’를 ‘다(-고) 한다’의 준말로 쓰이는 경우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중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남기심 1973/1986, 한길 1988,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이지양 1996 등; 연세 사전, 국연 사전).²⁷⁾ 예를 들어, 연세 사전에 의하면, 다음 (21)의 ‘단다’는 ‘다고 한다’가 줄어든 말이고 (22)의 ‘단다’는 종결어미라고 한다 (444쪽).²⁸⁾

(21) 가. 철수는 커서 변호사가 되겠다.

나. 자전거를 타면서 놓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물으니, 김병하 씨는 바로 이웃으로 이사를 했단다.

(22) 가. 나는 고향을 가진 친구들이 제일 부럽단다.

나. 내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붐 떠서 날았단다.

후자의 ‘단다’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이필영 (1993: 122, 143)은 “하나의 어미 구조체로 굳어진 형태론적 구성”이기 때문에 앞 쪽의 ‘다’를 내포절 어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지양 (1996: 198, 200)은 “독립적인 항목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 “융합에 의하여 형태화”된 것으로 본다. “형태론적 구성”이나 “형태화”된 것이 형태-통사론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 단위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소한 종결어미로서의 ‘단다’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종결어미는 없기 때문이다.²⁹⁾

우리는 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21)의 ‘단다’를 ‘단다₁’로 나타내고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22)의 ‘단다’를 ‘단다₂’로 나타내고자 한다. 기존 입장은 ‘단다₁’은 ‘다(-고) 하-ㄴ다’로 분석을 하고 ‘단다₂’는 하나의 형태소인 어말어미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다₁’ 분석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³⁰⁾ 위에서 보았듯

27) 지금부터 이 논문에 사용하는 예문들은 주로 연세 사전에서 나온 것이며 일부는 국연 사전에서 나온 것이다.

28) 용법상의 차이를 보면, 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인용함을 나타내고, 후자는 어떤 사실을 듣는 이에게 친근하게 말하여 줄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실을 객관화시켜 강조하거나 자랑할 때 쓰인다고 한다.

29) 드물긴 하지만 여러 형태소가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형태(“portmanteau morph”)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Spencer 1991: 50-51). 그렇지만 ‘단다’는 형태적으로 ‘다’와 ‘-ㄴ다’의 구별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볼 수는 없다. 우리말의 용언 어미 중 ‘어서, -어야, -어요’ 등을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요소로 분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어서’와 ‘어야’ 등의 연결어미가 비록 역사적으로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위라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말에서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Chae & No 1998: 85). 그리고 ‘어요’는 종결어미 ‘어’와 한정사 ‘요’로 이루어진 구성체이기 때문에 ‘어요’ 전체를 종결어미로 볼 수는 없다 (cf. ‘제가-요 어제-요 영화를-요 세 편을-요 보았습니다-요’).

이, 환원적 용법의 ‘-단다’은 비환원적 용법의 ‘-단다₂’와는 달리, 중간에 존칭이나 시제 어미가 삽입될 수 있다 (이필영 1993: 124, 이지양 1996: 199).

- (23) 가. 형은 자기가 직접 온다-니다/-시-니다/-왔-다/*-겠-다.
나. 우리는 여행을 간다-니다/*-시-니다/*-왔-다/*-겠-다.

(가)의 ‘-단다’에서는 숨어 있는 상위문 동사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나)의 ‘-단다’에서는 이런 활용이 불가능하다 (cf. 각주 23). 그리고 ‘-단다’은, ‘-단다₂’와는 달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단다’ 중간에 표현되지 않은 동사 어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반면에 ‘-단다₂’는 중간에 동사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다₂’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뒤 쪽 종결어미 ‘-니다’ 자리에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 쪽 종결어미 ‘-다’ 자리에도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부분과 ‘-니다’ 부분이 모두 생산적이라면 ‘-단다₂’를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는 없다. 즉,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것도 진정한 “융합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비환원적 용법의 경우에도 ‘-단다’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니다’ 자리에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필영 1993: 143).

- (24) 가. 나는 돈이 많-다-니다 [-단다].
나. 나는 돈이 많-다-네 [-다네].
다. 나는 돈이 많-다-오 [-다오].
라. 저는 돈이 많-다-버니다 [-답니다].

- (25) 가. 나도 자네와 함께 가고 싶-다-네 [-다네]. (남기심 1973/1986: 121)
나. 애가 우리 첫째-~~라~~-버니다 [-랍니다]. (이익섭/채완 1999: 122)

이처럼 ‘-니다’ 자리에 반말체 어미를 제외한 모든 평서문 어미가 나와서 비환원적 용법을 보인다.³¹⁾ 만약 ‘-단다₂’를 단일 형태소로 분석을 한다면 ‘-다네₂’, ‘-다오₂’와 ‘-답니다₂’도 모두 분해가 불가능한 단일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중립 화계의 평서문 어미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니다’ 자리에 경어법 등급에 따른 어미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가 중립 화계의 평서문 어미와 동일하다는 것은 (25나)가 잘 보여 준다. 계사 ‘이’ 다음에 나왔을 때는 ‘-다’가 아니라 ‘-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다₂’를 단

30) 물론, 4.2.3절에서 살펴 보겠지만, ‘-단다’을 ‘다(-고) 하-니다’로 보는 것은 생략이라는 통사 작용을 가정하는 분석이며 이런 분석은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1) 일부의 의문문 어미도 비환원적 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너 소풍 어디로 간다-니?’

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왜 ‘단다’와 동일한 걸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것 중 앞 쪽 종결어미 자리에 ‘다’ 이외의 다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다음 예문에서는 평서문 어미 ‘다’와 청유문 어미 ‘자’ 및 의문문 어미 ‘냐/느냐’가 동일한 자리에 나타난다.³²⁾

(26) ‘다거니’와 ‘자거니’:

가. 죽어도 못 먹겠-다거니 이걸 먹어야 산-다거니 하면서, 어머니와 나는 번번이 싸웠다.

나. 땀을 식힌 인부들은 미륵교를 건너가-자거니, 비신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가-자거니 서로들 의견이 분분하였다.

(27) ‘다든지’와 ‘자든지’:³³⁾

가. 놀이방은 엄마가 약하-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아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아이를 맡기는 곳이다.

나. 그는 학교 숙제를 해 준다든지 연극 구경을 함께 가-자든지 하면서 내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였다.

(28) ‘다니,’ ‘자니’와 ‘냐니’:

가. 조금 놀다가 금방 가-다니? (그럼 점심도 안 먹고 가려고?)

나. 집에 가-자니? (지금 몇 신데?)

다. 몇 살이-냐니? (아니 그래 당신은 당신 아내 나이도 몰라요?)

(29) ‘다니까,’ ‘자니까’와 ‘느냐니까/냐니까’:

가. 잘 아는 사이는 이래서 곤란하-다니까.

나. 뭐가 들었나 좀 보-자니까.

다. 저 사람 어디서 왔-느냐니까, 그런데 왜 바깥이 어두우-냐니까.

32) 이필영 (1993)은 비환원적 용법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cf. 이지양 1996: 204-05). 종결형의 경우 ‘온다나/온대나’에서처럼 [다]형과 [대]형이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다나, -다면서, -다니까’ 등과 ‘(나는 돈이) 많단다/*많댄다’에서처럼 [다]형만 나타나는 ‘-단다’ 등의 두 종류이다 (“하” 단축형”과 “하-탈락형”). 전자에서는 내포절이 “누군가의 말을 표현한 인용절”로 발화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 종결어미가 평서형뿐만 아니라 의문형, 명령형과 청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만 후자에서는 내포절이 “발화된 관념이 아니라 인지된 관념”을 나타내며 종결어미가 평서형으로만 나타난다 (132-33쪽). 전자의 경우 여러 유형의 SE가 가능하기 때문에 [SE-CSE] 단위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비종결형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51쪽).

33) ‘-든지’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으로도 쓰인다: ‘피곤하면 다른 사람들과 교대하든지,’ ‘그러면 전화로 미리 못 오겠다고 하든지.’ 그리고 (27나)에서 ‘자-든지’가 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것이라면, 즉 중간에 동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 ‘다든지’는 단일 형태소로 굳어진 어미일 가능성이 크다 (cf. 자료 (35-36) 및 그 설명).

(30) ‘다며’와 ‘자며’:

가. 삼촌도 여기 계시-다며?

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며?

(31) ‘다면서’와 ‘자면서’:

가. 우리 영화가 제일 고생이 많-다면서?

나. 배 고프다고 더 먹-자면서?

이렇게 ‘다’와 그 외의 어미가 교체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세 사전 등에서는 ‘다거니,’ ‘자거니,’ ‘다든지’와 ‘자든지’를 연결어미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³⁴⁾ 즉, 위의 열 네 가지 구성체를 모두 단일 형태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형태 분석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³⁵⁾ 위의 자료 (28-31)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니까₂’ ‘면서₂’ 등이 연결어미로 쓰이는 일반적인 ‘니까₁’이나 ‘면서₁’ 등과는 달리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³⁶⁾

우리는 [SE-CSE] 형태 중 ‘단다₂’류와 ‘다거니₂’류를 단일 형태소인 개별 어미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다₂’와 ‘다거니₂’는 앞 뒤 부분이 모두 생산성을 보이므로 단일 형태소는 아니며 최소한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 즉 ‘다-ㄴ다₂’와 ‘다-거니₂’로 분석을 해야 한다.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로 보았을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접근법은 그 두 요소를 모두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방법과 모두 접어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한 익명의 심사자는 전자의 방법을 제안했고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을 따르면 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양정석(p.c.)은 ‘단다₂’를 “두 개의 접어 ‘다’와 ‘ㄴ다’가 복합적 접어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한원적 [V-SE-CSE]의 SE와 CSE를 동일한 종류로 분석하는 것은 문

34) ‘자니까’는 (29)에서처럼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로도 쓰인다: ‘잠을 자-자니까 술 생각이 났다.’ 이 경우에는, 다음 (35)에서 살펴 보겠지만, ‘자니까’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5) 전산언어학적인 차원에서 효율성만 따진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거니’를 ‘다’와 ‘거니’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더라도 (‘다거니’ 유형과 ‘자거니’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다음의 네 가지 형태소만 가정하면 된다: ‘ㄴ다거니/는다거니/다거니, -라거니, -더라거니, -자거니.’

36) 일반적으로 인용절 본문소로 쓰이는 ‘-고’도 ‘-다고, -느냐고/냐고, -라고, -자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문장 끝에 오기도 한다 (cf. 남기심 1973/1986: 125-26, 이필영 1993: 188-89). 이런 ‘-고’를 (다음에 동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자체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어린이들이 반항적인 말투로 쓰는 ‘먹기 싫다-고/구’와 같은 표현에서의 ‘-고’는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다. 먹기 싫다는 의사를 이전에 드러내지 않았어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구’ 다음에 ‘했어’와 같은 말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사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다고, -(으)라고, -자고’도 있는데 (cf. (36)), 이 ‘-고’는 인용의 내포 표지로서의 기능은 없다 (이필영 1993: 190).

제가 있다. 우선, 한국어의 모든 용언 어미는 단일 형태소 요소인데 왜 [SE-CSE₂] 형만 다중 형태소 요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주 29 참조).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어말 굴절접사 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어말 굴절접사가 또 나올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절의 끝에만 나오는 굴절접사 두 개가 동시에 동일한 어절에 나타날 수는 없다. 두 요소를 모두 접어로 보아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한 가지 해결 가능성은 두 요소 사이에 숨어 있는 동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환원적 용법의 [V-SE-CSE₂] 단위에서는, 보문자 ‘-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SE와 CSE 중간에 ‘(-고) 하-’나 관련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23)에서 보았듯이, 환원적 용법의 [V-SE-CSE₁] 단위에서는 CSE₁ 앞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두 개의 주어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비환원적 용법의 [V-SE-CSE₂] 단위에서는 CSE₂ 앞에서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어도 한 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V-SE-CSE₁] 단위에는 두 개의 동사가 관련되어 있지만 [V-SE-CSE₂] 단위에는 겹으로 드러나는 동사 한 개밖에 없다. 용언의 어미를 모두 접어로 분석하는 접근법은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용언 어미를 모두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론 외적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2장에서 용언 어미들 중 종결어미까지는 굴절접사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았다.

[SE-CSE₂]형은 앞 뒤 부분이 모두 생산성을 보이므로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이 두 형태소를 동일한 형태-통사적 속성을 가진 단위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종결어미 다음에 붙는 ‘-ㄴ다₂/-거니₂’를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다음에 붙는 ‘-ㄴ다₁/-거니₁’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이다.³⁷⁾ 우리는 여기서 전자를 접어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후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굴절접사로 본다.³⁸⁾ 예를 들어, 환원적 용법의 ‘바쁘단다’는 (생략을 가정하면) [바쁘-다(-고) 하-ㄴ다₁]로 분석하고 비환원적 용법의 ‘바쁘단다’는 [바쁘-다-ㄴ다₂]로 분석한다는 것이다.³⁹⁾ 전자의 ‘-ㄴ다₁’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붙는 굴절접사인 종결어미이고 후자의 ‘-ㄴ다₂’는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 붙는 (종결) 접어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바쁘단다’의 두 용법에는 숨어 있는 동사

37) 전형적으로 ‘가-ㄴ다’의 ‘-ㄴ다’가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다음에 나오는 요소이지만 환원적 용법의 ‘가-ㄴ다-ㄴ다’의 뒤 쪽 ‘-ㄴ다’도 동일한 종류이다. 그 앞에 동사 어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38) 종결어미인 ‘-ㄴ다₁’은 굴절접사임이 분명하지만, 연결어미인 ‘-거니₁’의 정확한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종류의 연결어미가 하나의 굴절 패러다임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9) [바쁘-다-ㄴ다₂]의 ‘-ㄴ다₂’가 어떤 범주에 속하며 통사 구조상 어떤 위치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범주상으로는 용언과 결합하며 용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give up’과 같은 [V-Prt] 구성의 “Particle”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요소로는 ‘-ㄴ다₂’ 이외에 ‘-네₂, -오₂, -히니₂’ 등이 있다. 구조상으로는 ‘바쁘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 동사를 이룰 가능성과 ‘바쁘다’를 용언으로 하는 문장 전체와 결합할 가능성 등이 있다. 만약 ‘-ㄴ다₂’를 Prt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합 동사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의 관련여부와 ‘-나다’의 형태-통사적 지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바쁘단다’의 중의성은 결국 ‘-나다’의 중의성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⁴⁰⁾ 접어 분석의 타당성은, 한 마디로 하면, 해당 단위가 (종결어미와는) 독립된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절의 마지막 요소인 종결어미 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동사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단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사적) 단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분석에서는 한국어의 복잡한 어미 체계와 관련 현상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SE-CSE₂]형에서 SE와 CSE 사이에 추상 동사 ‘Ø’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1.2절에서 ‘-고’ 앞에 설정한 Ø-형 동사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동사를 설정하는 것은 표면주의와 어휘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긴다. 이 Ø-형 동사도 어떤 환경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추상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 일단 이런 동사를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 개의 Ø-형 동사가 필요하게 되어 이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진다 (cf. (19)). 둘째,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SE-CSE₂]형에서는 중간에 ‘-시-, -았-, -겠-’ 등의 동사 활용이 불가능하며 관련 문장의 주어도 한 개밖에 없다. 이는 중간에 Ø-형 동사를 포함한 어떤 용언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 만약 ‘-다-나다₂’ 중간에 Ø-형 동사가 있다면 이 동사는 ‘-다-나다₁’ 중간에 숨어 있는 동사와 다른 동사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바쁘단다₂’와 ‘바쁘단다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장 두 개 이상의 추상적인 동사를 설정해야만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SE와 CSE₂ 사이에 Ø-형 동사가 있다는 것은 SE와 CSE₂의 결합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두 요소의 결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모든 경우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든 경우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필영 (1993: 132-33)과 이지양 (1996: 204-05)에서 지적했듯이, 비환원적 융합형도 최소한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cf. 각주 32). 일부는 ‘(나는 집을) 짓-는다-나다/*짓-는다-나다’에서처럼 [대]형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일부는 ‘(영희가) 오-는다-나/오-는다-나’에서처럼 [대]형이 가능하다. 만약 중간에 Ø-형 동사가 있다면 이런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Ø-형 동사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동사도 없고 접어 CSE₂가 직접 선행 [V-SE]와 결합한다고 하면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접어는 독립 단어로 개별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40) 한 익명의 심사자는 우리의 분석에서 새롭게 규정된 접어들이 왜 “우연히도 한국어의 동사 어미들의 집합에서 그 음성 실현을 가져 왔는가” 하는 점에서 미스터리를 남긴다고 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역사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SE-CSE₂]형에서도 과거에는 ‘(-고) 하-’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통사적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결과 원래 ‘(-고) 하-’에 붙어 있던 어미가 지금은 단어적인 속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cf. 각주 42).

41) [대]형이 불가능한 CSE₂와 가능한 CSE₂를 구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후자만 앞 쪽에 수의적으

[SE-CSE₂]형에서 비록 역사적으로 이전에는 ‘(-고) 하’가 개입되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형태/통사적 잔재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cf. 각주 40, 41). ‘(-고) 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붙어 있던 굴절접사 어미가 지금은 단어적인 속성을 띠게 되어 접어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²⁾ 우리의 분석에서는 CSE₂가 모두 통사적으로 단어인 접어이기 때문에 CE가 계사 뒤에서 ‘-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대] 교체 현상도 모두 CSE₂의 개별 단어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 등은 중립 화계의 종결어미와만 결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 규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접어는 선행 종결어미로 [다]형과 [대]형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4.2.2. 선행 연구와 그 문제점: 우리 분석과의 비교

우리는 앞 절에서 비환원적 ‘-단다₂’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 형태소 ‘-나다₂’는 접어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았다. 그리고 이 두 형태소 중간에는 어떤 (추상적인) 동사 어간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는 [SE-CSE₂]형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이들의 분석에는 ‘-단다₂’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 이외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SE-CSE] 단위에서 중간에 ‘(-고) 하’나 추상적인 동사가 개입되지 않고 CSE가 SE를 가진 단위에 직접 결합한다고 본 선행 연구 중에는 권재일 (1985: 40-43)이 있다.⁴³⁾ 그는 (환원적 용법과 비환원적 용법을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간다고?, 간다면서?, 간다니까, 간다나’ 등의 ‘-고, -면서, -니까, -나’를 문장에 붙는 어미, 즉 “완형-동사구 내포문 어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어미가 어떤 형태-통사적 성격을 가진 단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면서, -니까’ 등은 문장이 아니라 용언에도 붙는데 두 종류가 동일한 것인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다만, 문장에 붙는 어미는 조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용언에 붙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우리의 접어 분석에서는 두 요소의 형태-통사적 속성 차이와 “문장 어미”의 조사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용언 어미와 문장 어미는 굴절접사와 접어로 구별이 된다. 그리고 문장 어미가 조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용언 어미보다 독립

로 구현되는 반자음 /j/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반자음이 앞에 나오는 [다]와 결합하여 [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채희락(2005)은 동사 ‘하’를 /j/ 소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j-종성 체언”으로 본다. [SE-CSE₂]형에서 ‘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일부의 CSE₂에는 /j/ 소리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cf. 각주 50).

42)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문법화의 방향은 [단어 → 접어 → 접사]의 순서이지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CSE₂는 어미에서 접어로 된 “역문법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언어 변화가 한 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보는 것보다는 양 쪽 방향으로 모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43) 남기심 (1973/1986: 121-25)은 비환원적 용법의 ‘왔단다’를 ‘왔다’의 “문체론적 변이형”으로 보고, ‘왔다’에서 ‘왔단다’를 도출해 내는 수의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다’를 ‘-다’와 마찬가지로 단일 형태소 어미로 보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장 어미를 접어로 보는 우리의 분석에서는 이 특성이 잘 포착된다.

이필영 (1993: 120)은 [SE-CSE₂] 구성에서 SE와 CSE가 직접 결합한다고 보기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인용절의 종결어미 ‘-다’가 계사 ‘이-’ 뒤에서 ‘-라’로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원적 융합형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부 비환원적 융합형의 경우에도 다음처럼 [다]형 과 [대]형이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 단축형: cf. 각주 32).⁴⁴⁾

(32) 가. 철수가 내일 결혼[다/대]-나.

나. 설악산이 아름답[다/대]-면서?

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대]-니까.

라. 떠난[다/대]-니?

그래서 SE와 CSE 중간에 있는 ‘하-’가 “단축 또는 탈락하면서 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필영 (1993: 122, 143)의 주장과는 달리, ‘-단 다₂’와 같은 것을 “하나의 어미 구조체로 굳어진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즉, SE와 CSE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SE와 CSE 중간에서 ‘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그 중간에 ‘(-고) 하-’나 관련 동사 어간이 숨어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SE와 CSE가 분리되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의 흔적이 SE-CSE 연결체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환원적 융합체 속에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어떤 (추상적인) 동사도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이필영 (1993)이 제시한 SE/CSE 직접 결합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절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으므로 우리의 접어 분석에 대한 문제점은 될 수 없다.

안명철 (1992)과 이지양 (1996: 201-3)도 [SE-CSE₂]형을 SE와 CSE의 직접적인 통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이유는 어절의 마지막 위치에 오는 종결어미 다음에 다른 성분이 추가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단 다₂’에서 ‘-다’와 ‘-나다’가 모두 동일한 종류의 종결어미라면 이들의 결합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서는 전자는 굴절접사이지만 후자는 접어로 서로 다른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명철과 이지양은 그 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희가 안 간다면서? 나도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와 같은 예에서처럼 인용된 발화를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다’에서의 ‘-나다’는 그 앞에 동사가 존재

44) 용언이 동사의 현재형일 때를 보면 ‘-나다/는다’ 전체가 아니라 [다] 부분만 [대]와 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다는 흔적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만약 둘이 직접 결합했다면 형용사 ‘예쁘다’에는 형용사 종결어미인 ‘-다’가 붙어 *예쁘다다’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들은 역사적으로 SE와 CSE 사이에 인용 동사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4.2.1절에서 보았듯이, SE와 CSE₂는 각각 독립된 형태소이기 때문에 통시적 흔적이 SE-CSE 결합체에 숨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중간에 추상동사 ‘Ø’도 없으므로 이 동사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SE-CSE₂] 구성에서 인용 동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SE나 CSE에 남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굴절접사인 SE보다는 접어인 CSE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⁴⁵⁾ 굴절접사는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법 요소이지만 접어는 개별성이 큰 어휘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SE는 [SE-CSE₂] 구성 이외에도 널리 나타나지만 CSE₂는 한정된 구성에서만 나타난다. CSE₂가 접어라고 가정하면 위의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면서’와 같은 일부 CSE₂는 선행절을 보충어로 취하면서 의미/화용적으로 그 선행절을 인용절처럼 해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예쁘다다’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다’는 접어가 아니라 일반 굴절접사이기 때문이다. 동사류 접어인 ‘-다₂’만 (동사와 형용사의) 종결어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

4.2.3. 환원적 [SE-CSE]의 분석: ‘(-고) 하’ 생략 vs. 추상 동사 ‘Ø’ 설정

우리는 앞 두 절에서 비환원적 [SE-CSE₂] 단위를 분석했다. SE와 CSE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소이지만 중간에 Ø-형 동사를 포함한 그 어떤 동사의 어간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원적 [SE-CSE₁]에 대해서는 중간에 “(-고) 하’나 관련 동사가 숨어 있다고”만 가정해 왔었다. 생략이라는 통사적 작용을 인정하는 이론과 그렇지 않은 이론이 서로 다르다는 정도는 필요에 따라 언급을 했지만 (각주 18, 23),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이 절에서는 환원적 [SE-CSE₁]를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 보려고 한다.

SE와 CSE 중간에 ‘(-고) 하’나 관련 동사의 어간이 숨어 있다는 말은 이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생략을 인정하는 변형생성문법적 다층 이론의 전통에서는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지만, 생략을 인정하지 않는 “핵어 중심 구구조문법(HPSG)” 등 표면구조 중심의 단층 이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생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동사가 있다면 들리지/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환원적 용법의 CSE 앞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cf. 4.2.1).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사는 일종의 Ø-형 동사이다.

비록 우리는 이 논문에서 보문소 ‘-고’와 CSE₂ 앞에서는 Ø-형 동사를 설정할

45) 이지양 (1996: 202)은 ‘온다’와 ‘온단다’의 의미 차이가 일반 종결어미 ‘-다’와 ‘-단다’의 앞 쪽 ‘-다’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 차이는 ‘-단다’의 ‘-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 없다고 했지만, CSE₁ 앞에서의 Ø-형 동사는 훨씬 덜 추상적이며 확실한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이 경우에는 앞에 존칭, 시제 등의 선어말어미가 삽입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주어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Ø-형 동사는 통사/의미적으로 인용 동사 ‘하-’와 비슷하기 때문에, Sag et al. (2003: sec. 15.3.5)의 “무성 계사(silent copula)” 분석에서처럼, “어휘 규칙(lexical rules)”으로 ‘하-’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cf. 채희락 2005: 171).

(33) “무성 인용 동사” 어휘 규칙

$$\left\{ \begin{array}{l} \text{d-rule} \\ \text{INPUT} \quad \langle \text{ha-}, \text{AGR-ST} \langle \dots, \text{CP/S[SPEECH-LEVEL neutral, } \dots \rangle \rangle \\ \text{OUTPUT} \quad \langle \emptyset, \text{AGR-ST} \langle \dots, \text{S[SPEECH-LEVEL neutral, } \dots \rangle \rangle \end{array} \right\}$$

이 규칙의 “입력 동사” ‘하-’와 “출력 동사” ‘Ø-’는 모두 중립화계의 어미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음운론적 음가의 유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동사는 논항으로 보문소 절이나 보문소가 없는 절을 취한다.⁴⁶⁾ 물론 CP의 머리어인 보문소는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접어로 규정한 ‘-고’이다.

(15) 가. 철수가 간다고 하-나. 나. 철수가 간다 하-나.

(34) 가. *(영희가) 철수가 간다고 Ø-나 [간다곤다].
나. (영희가) 철수가 간다 Ø-나 [간단다].

그렇지만, (34)에서 볼 수 있듯이, 출력 동사는 보문소가 없는 절만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33)의 규칙을 굴절 규칙으로 보아야 할지 파생 규칙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파생 규칙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우리의 무성 인용 동사 ‘Ø-’는 인용 동사 ‘하-’의 한 굴절 형태가 아니라 관련은 있지만 새로운 어휘소라는 것이다. 우선, 위에서 보았듯이, 입력 동사와 출력 동사가 취하는 보충어가 서로 다르므로 (15가)와 (34가)의 문법성에 차이가 난다. 이는 두 요소 사이에 통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외에 그 심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5나)와 (34나)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 ‘Ø-’

46) (15)에서 문장 (가)와 문장 (나)가 의미/화용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필영 (1995)에 의하면 전자는 구어적이며 후자는 문어적이다. 만약 이런 문체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문소 절을 취하는 ‘하-’와 보문소가 없는 절을 취하는 ‘하-’를 구별하고 전자에서 후자를 도출해 내는 파생 어휘 규칙이 필요하다 (cf. Sag et al. 2003: 357-58). 만약 이 두 가지 ‘하-’를 구별한다면 (33)의 입력 동사는 후자 ‘하-’가 되며 이와 출력 동사 ‘Ø-’ 사이에는 논항 구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는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이 둘이 한 어휘소의 서로 다른 굴절형 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어휘소 사이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SE와 CSE 사이에서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이론과 그 사이에 0-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보는 이론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살펴 보자. 우리는 생략을 가정하지 않는 단층 이론이 이를 가정하는 다층 이론보다 훨씬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두 이론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고) 하-’ 생략을 가정하는 이론보다 추상 동사 ‘0-’를 설정하는 이론이 (15)와 (34)의 자료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cf. 각주 30).

SE와 CSE 사이에서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할 경우 생략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또 그 요소가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전통적인 설명은 먼저 (15가)에서 ‘-고’가 생략되어 (15나)가 만들어 지며 (15나)에서 다시 ‘하-’가 생략되어 (34나)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15가)에서 (15나)가 도출된다면 ‘-고’가 어떤 환경에서 왜 생략이 되는지 그 이유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34나)는 ‘하-’ 생략에 의해 도출해 낼 수 있다지만 왜 (34가)는 불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생략 현상들을 음운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형태/통사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규칙들을 사용하면 해당 문법 체계의 “생성력(generative capacity)”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이필영 (1993: 117)은 위의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단다’로 축약/융합되기 이전에 ‘-고’가 탈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가 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또 다른 융합을 위해 그 ‘-고’가 탈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필영 (1995)은 ‘-다고 한다’에서 ‘-고’가 탈락하여 ‘다 한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독립적인 표현으로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다’는 ‘-다고 한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한다’의 축약형으로 본다. 이 접근법은 ‘-고’ 생략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전통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런 분석에서는 무엇보다 ‘다고 한다’와 ‘다 한다’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명 역사적으로는 두 형태가 독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어린애들이 이들을 서로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위의 ‘-고’ 탈락 관련 문제는 생략을 가정하는 이론에서만 생긴다는 것이다.

SE와 CSE 사이에 0-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단층 이론에서는 (15)와 (34)의 자료를 좀 더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5)의 두 문장은 보문소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 차이를 상위 동사의 개별적인 보충어 선택의 문제로 본다. 즉, 어휘 규칙 (33)의 입력 부분에서 규정

된 대로, ‘하-’ 동사가 CP나 S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34가)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33)의 출력 부분에서 규정된 대로, 추상 동사 ‘Ø’는 보문소가 없는 절만 보충어로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절의 자료 (38)에서 볼 수 있듯이, ‘(-고) 하-’가 겹으로 드러난 유형과 환원적 [SE-CSE]_i 유형은 그 속성이 서로 다르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추상 동사를 설정하는 이론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다층 이론에서는 이론적 특성상 (15)와 (34)에서 볼 수 있는 (생략) 현상들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현상들은 개별 어휘 항목들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단층 이론에서는 개별적인 특수성은 개별 어휘의 속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3. 동사류 소단위어의 유형 분류

우리는 앞의 두 절에서 인용적 조사 ‘-고’와 일부 종결/연결어미의 형태-통사적 지위를 고찰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사류 소단위어 중에서도 접어로 분석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음을 알았다. 이 절에서는 4.2절에서 제시한 분석을 확장하여 동사류 소단위어들을 새롭게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앞 절에서 살펴 본 [V-SE-CSE] 단위는 SE가 중립 화계 어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SE와 CSE 사이에 ‘(-고) 하-’ 관련 추상 동사 ‘Ø’가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SE는 V에 붙는 중립 화계 종결어미이고 CSE는 ‘Ø’에 붙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 중 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단위, 즉 -CSE₁을 포함하는 단위는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보고의 의미는 추상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V-SE-CSE] 단위의 두 번째 유형은 접어인 CSE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SE는 V에 붙는 중립 화계 종결어미이고 CSE는 홀로 설 수 있는 자립 단위인 [V-SE]나 더 큰 단위에 붙는 접어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 중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단위, 즉 -CSE₂를 포함하는 단위는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문장은 보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SE와 CSE 중간에 동사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SE나 CSE가 개별적인 형태소 지위를 상실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소로 된 유형이다. 즉, SE와 CSE 중 최소한 한 요소는 본래의 고유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Ø-형 동사의 어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미가 된 유형이다.⁴⁷⁾

47)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다면’은 중의적이다: ‘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나?’ (남기심 1973/1986: 128-29).

(35) ‘자니,’ ‘자니까’:

가. 수술을 받-자니/자니까 덜컥 겁이 났다.

나. 잠을 자-자니/자니까 갑자기 술 생각이 났다.

(36) ‘-다고,’ ‘-(으)라고,’ ‘-자고’ (cf. 이필영 1993: 190):

가. 어제는 공부하-ㄴ다고 잠을 조금밖에 못 잤다.

나. 건강하-다고 몸을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다. 앉-으라고 자리를 비켜 주었더니 앉지를 앉더구나.

라. 보기에 좋-으라고 꽃을 꺾었다.

마. 점심 한 끼 얻어 먹-자고 이 고생을 한 줄 아느냐?

바. 이걸 나 혼자만 배 부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35)의 ‘자니/자니까’는 의도와 시간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형적으로 ‘-자’와 ‘-니/니까’는 각각 청유와 원인/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자니/자니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용법은 ‘어디 보-자’와 같은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니/니까’의 용법은 ‘학교에 가 보-니/니까 아무도 없었다’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의미에서 위의 ‘자니/자니까’의 의미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니/니까’는 어느 정도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가 단독으로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⁴⁸⁾ 관련 형태소의 개별적인 기능이 없음을 보여 주는 더욱 확실한 예는 (36)의 ‘-다고,’ ‘-(으)라고,’ ‘-자고’가 있다. 우선, 여기서의 ‘-고’는 인용절을 이끄는 보문소 기능이 없다. 인용 동사 ‘하’가 생략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용절을 요구하는 용언도 없다 (이필영 1993: 190). 그리고 ‘-다,’ ‘-(으)라,’ ‘-자’도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라)와 (바)에서처럼 ‘-(으)라’와 ‘-자’가 형용사와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는 형용사와 결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36)의 ‘-다고,’ ‘-(으)라고,’ ‘-자고’는 전체가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성 연결어미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cf. 각주 36). 결론적으로, (35)와 (36)의 표현은 모두 SE나 CSE 중 최소한 하나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SE-CSE 연결체를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는 없다 (Chae & No 1998: 82).

우리는 중립 화제 SE를 포함하고 있는 [V-SE-CSE] 단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다면’이 비환원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

48) 다음의 예문에서는 ‘자(고) 하니’ 전체가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바라-자(고) 하니 아깝고 먹-자(고) 하니 먹을 게 없는 게 계류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도의 의미는 ‘자(고) 하’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열매는 먹-자 해도 먹을 것이 없다’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니’가 없어도 의도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5)의 ‘자니/자니까’가 가지고 있는 의도의 의미는 ‘자’도 아니고 ‘-니/니까’도 아닌 ‘자(고) 하’에서 유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하’를 환원할 수 없는 표현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자’와 ‘-니/니까’ 중간에 ‘하’가 존재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어 보았다. 이제 다양한 용법을 보이는 ‘자니’를 바탕으로 세 유형의 차이를 좀 더 살펴 보도록 하자. 연세 사전에서는 이를 다음의 4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37) 가. -자니1 (종결어미): 집에 가-자니? (지금 몇 신데?)

나. -자니2 (‘-자고 하니’의 준꼴): 왜 빨리 집에 가-자니?

다. -자니3 (어미): 다시 또 집으로 가-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라. -자니4 (‘-자고 하니’의 준꼴): 애가 하-자니 그냥 해 보는 거지요 뭐.

우선, (나)와 (라)는 (‘-고) 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와 ‘니’가 독립 형태소로 모두 용언의 어간에 붙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분석과 우리의 분석에 차이가 없다. 이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은 ‘니’가 의문형 종결어미와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기능을 중의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⁴⁹⁾ (다)는 ‘자니’ 전체가 하나의 단일 형태소를 이루므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며 여기서도 두 분석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의 분석에는 두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존 분석에서는 ‘자니’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의 ‘자니’를 굴절접사 ‘자’와 접어 ‘니’로 분석하여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본다. 이 접어 ‘니’는 비록 기능적으로는 (나)의 의문형 어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라)의 연결어미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위의 세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과 (‘-고) 하’가 겹으로 드러난 유형, 즉 [V-SE(‘-고) 하-CSE] 유형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8) 가. 먹었-다(‘-고) 하-므로, 먹었-다(‘-고) 하-여서 [해서]

나. *먹었-다-므로, *먹었-다(아/어)서

연결어미 ‘-므로’와 ‘-어서’는 (‘-고) 하’가 나타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구성이 된다.⁵⁰⁾ 기존 분석에서든 우리의 분석에서든 (나)의 구

49) 종결어미로서의 ‘니’와 연결어미로서의 ‘니’는 형태적 특성도 다르다. ‘뭘 잡-니?’와 ‘손을 잡-으니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다음에도 ‘니’ 형태이지만 후자는 ‘-으니’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자는 ‘니까?’와의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니까?’와의 교체가 가능하다 (cf. 이필영 1993: 137).

50) ‘먹었-다(아/어)서’가 비문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필영 (1993: 118)은 (‘(-고) 하’가 생략되기 이전의 모습인) “하-어-X형”인 경우에는 “대개 융합형이 ‘대-’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생략된 상위 동사 ‘하’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는 ‘먹었대서’처럼 [대]형으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채희락 (2005)에서는 중간에 있는 0-형 동사 어간과 이에 딸린 반자음 /j/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모두 모음일 때는 선행 종결어미와 이 반자음이 결합해서 반드시 축약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먹었-다 0-어서’ ⇒ ‘먹었-대-어서’ ⇒ ‘먹었대서’) (cf. 각주 41).

성이 비환원적 용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존 분석에서는 ‘-다프로’와 ‘-다(아/어)서’가 적법한 어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접어 분석에서는 ‘-프로’와 ‘-어서’가 어미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접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먹었-다-프로’와 ‘먹었-다-(아/어)서’가 환원적 용법도 가질 수 없는 지에 대해서는 두 접근법의 설명력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단층 이론적 관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V-SE-CSE]에서 SE와 CSE 사이에 ‘(-고) 하-’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Ø-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본다. 이런 우리 분석에서는 ‘하-’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 집합과 Ø-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 집합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어미는 ‘하-’를 포함한 일반 동사의 어간과 Ø-형 동사 어간에 모두 붙을 수 있지만 ‘-프로’와 ‘-어서’ 등은 일반 동사에만 붙을 수 있고 Ø-와는 결합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⁵¹⁾ 그러나 기존 접근법에서는 다층 이론적 관점에서 SE와 CSE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연결어미 ‘-프로’나 ‘-어서’가 ‘-다, -나’ 등의 중립화계 어미와 이웃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규제하는 표면 제약으로 일반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자의적인 것이다.

다음 유의 사항은 두 번째 유형의 CSE는 접어인데 SE가 중립화계 어미가 아닌 경우에도 CSE를 접어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SE는 중립 화계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도 ‘(-고) 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SE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CSE와 하나의 형태소를 이룬다고 볼 수도 없다.⁵²⁾

(39) ‘-그러’:

- 가. 허허, 자네 제법 나라 걱정하네-그러.
- 나.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그러.
- 다.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지는 말-게-그러.
- 라. 자 어서 들어 가-십시다-그러.

(40) ‘-그래’:

- 가. 그가 공산주의자라니 이해가 안 가-는구먼-그래.
- 나. 얼굴이 좋-구먼-그래.
- 다. 그것 참 신통하-군-그래.
- 라. 그 물건 자네가 사겠다고 하-지-그래.

51) ‘-프로’나 ‘-어서’와 동일한 속성을 보이는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도, -어야, -(으)나, -(으)되, -고서, -(으)려고, -고자, -게, -도록.’

52) ‘-그러’와 ‘-그래’는 선행 문장이 서술문임을 나타내는 “운용자(operator)”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혜윤, p.c.).

(41) ‘-마는’:

- 가. 산이 험하기는 하-니니다-마는 못 오를 정도는 아닙니다.
 나. 가고는 싶-다-마는 시간이 없구나.
 다. 봄이 왔-다-마는 꽃이 안핀다.
 라. 세상살이가 돌아가는 물레방아라고 하-더라-마는 ...
 마. 얼마 되겠-느냐-마는 보태어 쓰도록 하라.
 바. 너도 가-자-마는 그다지 재미는 없을 것이다.
 사.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네-마는 자네는 어떤가?

남기심/고영근 (1993: 105)에서는 명사, 부사, 용언의 연결어미와 두루 쓰이는 “통용 보조사”와는 달리 위의 모든 요소를 “문장 끝”에만 쓰이기 때문에 “종결 보조사”라고 한다. 연세 사전과 국언 사전에서도 모두 (보)조사, 즉 한정사로 처리를 하고 있다.⁵³⁾ 그러나 이들이 명사나 부사 등의 다른 품사에는 붙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언의 경우에도 종결어미로 끝난 단위에만 붙기 때문에 한정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정사의 전형적인 속성은 여러 품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두 번째 유형 [V-SE-CSE] 단위의 CSE처럼 용언의 종결형에 붙는 접어로 분석하면 이런 분포상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CSE와 이들 CSE의 차이는 전자는 중립 화제의 종결어미와만 결합하지만 후자는 그 외의 종결어미와도 결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유형 속의 CSE와 (39-41)의 CSE를 포함하는 하나의 새로운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주는 형태-통사적 지위상으로는 한정사와 마찬가지로 접어이지만 한정사와는 달리 용언의 종결형에만 붙을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파생접사를 제외한) 동사류 소단위어를 크게 용언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에 붙는 굴절접사와 [용언-종결어미]나 그보다 큰 단위에 붙는 접어로 나눌 수 있다. 보문소 ‘-고’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살펴 본 각종 종결/연결어미를 (세 번째 유형 [V-SE-CSE] 단위 속의 [SE-CSE]를 제외하고) 종결/연결의 기능과 굴절접사/접어의 지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결의 기능을 갖는 어말어미는 모두 굴절접사이지만 ‘-니다, -네, -오, -니니다’는 굴절접사와 접어의 중의성을 갖는다. 이 중의적 형태소들이 굴절접사일 때는 각 형태별로 변이형이 있지만 (‘-니다/는다/다, -네, -오, -니니다/습니다’), 접어일 때는 변이형이 없다. 그리고 ‘-그래’와 ‘-그려’는 접어로서만 존재한다. ‘-니, -니까, -면서’ 등은 연결의 기능을 할 때는 굴절접사이지만 종결의 기능을 할 때는 접어이다.

53) 서태룡 (1987: 113-14)과 이필영 (1993: 171-72)에서는 ‘-다만, -냐만, -라만, -자만’을 “선행문의 종결형 ‘-다, -냐, -라, -자’와 조사 ‘만(은)’이 융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41)에서처럼 용언의 종결형 다음에 나오는 ‘-마는’은 조사 ‘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마는’이 ‘-만-은’으로 분석될 수 있는 한정사라면 왜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만 붙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41)에서 ‘-마는’은 양보의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한정사 ‘-만-은’은 양보의 의미가 없고 ‘only’의 의미와 대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철수-만은 그렇지 않다, 죽어-자-만은 않았다.’

연결의 기능을 갖는 요소 중에서 ‘-므로, -어서’ 등은 굴절접사이고 ‘-마는’은 접어이다. 그리고 ‘-거니, -든지’ 등은 기능은 동일한데 굴절접사와 접어의 중의성을 띠고 있다.

(42) 종결/연결어미의 분류

	[선어말 어미 -] 굴절접사	[어말 종결 어미 -] 접어
종결	<p><A></p> <p>-어, -느냐, -습니까, -자, ... -니 (37나) -니다, -네, -오, -ㅂ니다</p>	<p></p> <p>-니다, -네, -오, -ㅂ니다 (24) -그래, -그러 (39-40) -니 (37가), -니까, -면서 (28-31) -고 (cf. 각주 36)</p>
연결	<p><C></p> <p>-므로, -어서 (38) -거니, -든지 -니 (37라), -니까, -면서</p>	<p><D></p> <p>-고 (보문소) -거니, -든지 (26-27) -마는 (41)</p>

우리는 위의 분석에 따라 중의성을 갖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⁵⁴⁾

(43) 종결/연결어미의 중의성 유형

- 가. [A-B]형: ‘-니다, -네, -오, -ㅂ니다’
 나. [B-C]형: ‘-니, -니까, -면서’ 등
 다. [C-D]형: ‘-거니, -든지’ 등
 라. [B-D]형: ‘-고’

두 번째 부류 요소들과 네 번째 부류 ‘-고’는 연결과 종결의 두 기능으로 확실히 구별이 된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는 동일 기능 내에서 형태-통사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 ‘가-니다’와 ‘(나는) 간다-니다’의 의미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부류의 ‘-니다’는 중의적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54) 도표 (42)에 의하면 가능한 중의성 유형이 (43)에 제시된 것 이외에 [A-C]형과 [A-D]형이 더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본 자료 중에는 [A-D]형이 없는 것 같다. [A-C]형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37)의 (나)와 (라)에서 살펴 본 ‘-니’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각주 49에서 보았듯이, 선행 요소가 자음일 때는 기능별로 겹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새 번째 부류에서, 예를 들어, ‘-거니’가 ‘주-거니 받-거니’에서처럼 굴절접사의 기능을 할 때와 ‘주었다-거니 안 받았다-거니’에서처럼 접어의 기능을 할 때에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⁵⁵⁾

5. 결 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한국어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와 동사류 소단위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분석이 합리적인지 개관하였다. 격조사는 특수 접어의 일종인 구접사로 보고 후치사와 한정사는 전형적인 접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았다. 후자에 대해서는 존칭 선어말어미 ‘-사’에서부터 ‘-다’를 포함한 서범 어말어미까지의 굴절접사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인용 조사 ‘-고’나 비환원적 용법의 ‘바쁘단다’에 나오는 ‘-나다’와 같이 어말어미 다음에 붙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므로 이들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다. 우리는 이들을 모두 전형적인 접어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고’는 바로 앞의 중립 화제 어미와 분리되어야 함을 보았으며, 그 앞에 추상적인 동사 ‘ \emptyset ’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알았다. 하나의 독립 요소로서 그 앞에 중립 화제 어미만 나타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를 통사적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종결어미 ‘-나다, -네, -오, -다니다’와 일부 연결어미는 굴절접사와 접어로 중의적임을 알았다. 그 외 일부는 굴절접사로만 분석되며 또 다른 일부는 접어로만 분석이 되었다.

한국어 소단위어에 대한 분석 방법은 크게 극단적인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거의 모든 소단위어를 접어로 분석을 하며 다른 쪽에서는 대부분을 굴절접사로 분석을 한다. 전자에서는 해당 소단위어들의 형태-음운적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후자에서는 형태-통사적 속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소단위어의 지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양 쪽 속성을 모두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각 소단위어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와 동사류 소단위어가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부류내의 소단위어들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명사류/범범주 소단위어는 접어적인 속성이 크며 동사류 소단위어는 굴절접사적인 속성이 크다. 그러나 전자에 속하는 격조사는 전형적인 접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굴절접사적인 속성이 크며, 후자에 속하는 요소 중에서도 접어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55) 만약 세 번째 부류 요소들의 용법에 차이가 없다면 도표 (42)에서 굴절접사로서 연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은 다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접어라면 이들은 어말어미뿐만 아니라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에도 붙을 수 있는 접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f. 각주 38).

참 고 문 헌

- [국언 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고영근. (1974).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 권재일.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중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 남기심. (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남기심. (1973/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 고영근. (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남윤진. (2000). 현대 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서태룡. (1987).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안명철. (1992). 현대 국어의 보문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승녕. (1953). 격의 독립품사시비. 국어국문학 3.
- 이익섭, 채완. (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양. (1996).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 이필영. (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 (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 국어학 26.
- 채희락. (1996가).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 채희락. (1996나). 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 언어와 언어학 22.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 채희락. (2005). 융합 현상과 ‘(-고) 하’ 생략. 자연언어의 구조와 지식의 통합. 2005년 한국언어정보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 자료.
- 최기용. (2003). 한국어의 핵 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1).
- 최현배. (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 길. (1988). 예사낱춤 종결어미 형태 ‘-다네’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 Ahn, Hee-Don and Hang-Jin Yoon.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 Chae, Hee-Rahk. (1991/2000). The Morphological status of nominal “particles” in Korean. In Chungmin Lee and John Whitman, eds., *Korean Syntax and Semantics: LSA Institute Workshop, Santa Cruz, '91*. Thaeaksa.
- Chae, Hee-Rahk. (1995). Clitic analyses of Korean “little words.”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10.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Chae, Hee-Rahk and Yongkyoon No. (1998).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

- Korean Linguistics* 9.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Cho, Young-Mee Yu and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 Kuh, Hakan. (1988). The morphological status of Korean case markers.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 Nevis, Joel A. (1985). *Finnish Particle Clitics and General Clitic Theor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 Sag, Ivan, Thomas Wasow and Emily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2nd ed. CSLI Publications.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ing,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ek Hap Sa.
- Yoon, James Hye Suk. (1995). Nominal, verbal, and cross-categorial affixation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 Yoon, Jung-Me. (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
- Zwicky, Arnold M. (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
- Zwicky, Arnold M. and Geoffrey K. Pullum. (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English *n't*." *Language* 59(3).

채 회 략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인지과학과

전자우편: hrchae@hufs.ac.kr

접수일자 : 2005. 5. 9

수정본 접수 : 2005. 8. 31

게재결정 : 2005. 9. 8